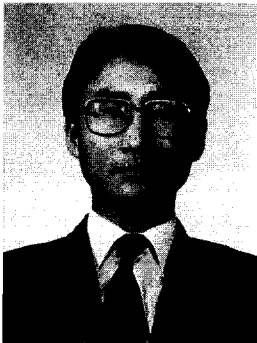


酒精原料 需給 中·長期 展望(I)



車 洪 基

〈대한주류공업협회 주정부차장〉

* 본고는 2회에 걸쳐 게재할 것임.
- 편집자 註 -

■ 目 次 ■

- I. 背景
- II. 酒精原料 需給
- III. 先進國의 酒精關聯 原料配定制度 및 規制事項
- IV. 政府의 酒精原料 政策展望
- V. 酒精原料 需給上의 問題点
- VI. 酒精原料 確保對策

I. 背景

최근 개방 경제시대에 세계경제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함에 따라 국내 산업환경도 새로운 秩序속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세계적인 시대조류에 따라 국내 주류산업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소주와 주정이 98, 99년도부터 외국인 투자개방을 시행할 계획으로 앞으로 無限 競爭時代에 突入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주정산업은 국내농산물의 1차 가공산업으로 농가소득 보호, 국민보건 위생 및 세수 확보등 특수 목적을 위한 산업차원에서 타산업보다 정부의 保護 育成策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정산업을 소비재 산업으로 분류하여 정부의 규제완화와 지원을 축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정책적으로 주정생산을 위한 전체 소요원료 중에서 농가 소득보호 목적으로 보리, 고구마, 옥수수등 국내산원료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분에 한하여 수입원료를 구입사용토록 규제하고 있다.

매년 생산농가가 타 작물보다 수익성이 낮은 국산 주정원료의 栽培忌避에 따라 생산량이 減少되고 수입원료의 사용비중이 점차 증가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96년 이후에는 정부양곡 재고미(통일 쌀) 소진으로 동원료의 공급이 중단되어 수입원료의 의존도가 더욱 상승하고 있으며 OECD 가입과 WTO 협약에 따른 농산물 수입 자유화 조치와 국내 곡물 생산량 부족에 따른 가격 앙등으로 외화유출이 심화되어 貿易收支 赤字를 加重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가소득 보호, 무역역조 개선, 주정산업의 안정화등을 위해 국내 농산물을 적극

적으로 생산장려하여 식량 자급율을 높이고, 잉여 농산물을 증가시켜 이를 주정원료로 사용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며 중·장기측면에서 향후 주정원료 공급을 전망코자 한다.

II. 酒精原料 需給

가. 주정원료의 政府政策

지난 60년대까지 정부의 주정원료 배정원칙은 양곡을 제외한 잉여농산물을 증산장려하여 사용토록 권장하였으나 수급실적에 따라 매년 원료가 변경되고 있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일제시대부터 해방 직후까지는 양곡확보를 위해 주조원료로 薯類 및 雜穀類만 사용토록 하였으며, 1950년대는 대부분 고구마를 사용하고 부족분에 한하여 당밀을 수입사용하였고, 1960년대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수입대체 산업 육성시책을 시행하여 주정원료의 고구마 國產化政策을 실시하였으나 재배농민들의 비협조로 생산이 감소하여 수입당밀을 병행 사용하였다.

1970년대는 고구마 생산량 부족으로 수입당밀과 잡곡류 및 소맥분을 사용하였으나 1974년부터 당밀에 대체하여 타피오카를 수입 사용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정책에 따른 公害問題가 擡頭되어 수입당밀 사용을 규제(1982)하고 조주정 및 국산보리를 주정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정부의 양곡 증산정책으로 정부 보유미가 증가되어 양특적자 해소와 국산원료 사용비율을 증가시키고, 酒精價格을 安定하기 위해 통일쌀(92~95) 일부를 사용하였으나 수년전부터 매년 주정가격을 동결 또는 소폭 조정하여 고가의 국내산원료를 조정함으로써 국산원료 사용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酒精原料 需給現況

1) 國產原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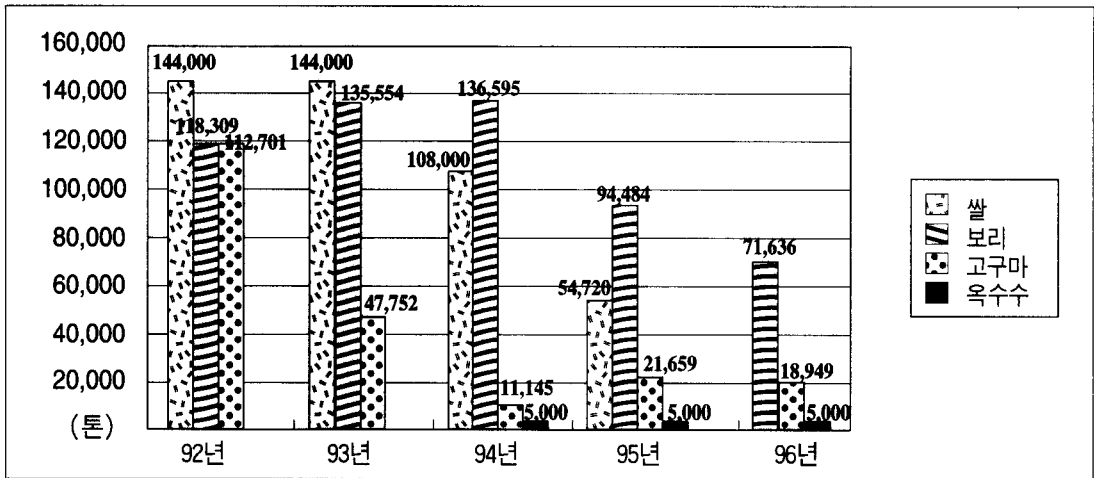
과거에는 식량부족으로 양곡관리법에 의거 양곡이 주류원료로서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80년대 통일쌀 증산정책으로 생산량이 증가되고 소비가 감소하여 많은 량의 재고미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장기보관으로 인한 變質憂慮 및 糧特赤字를 解消하고 고가의 국산보리 사용에 따른 酒精價格의 引下要因을 抑制하기 위하여 92년부터 정부 재고미(통일미)를 저렴한 공급가격을 적용하여 주정원료로 공급함으로써 국산원료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주정가격 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92년 이후 통일미의 수매중단으로 재고가 소진되어 96년부터 주정원료로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국산원료의 사용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주정원료로서 가장 많이 사용된 고구마는 농협 收買全量을 酒精用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타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농민의 생산기피로 인해 栽培面積이 감소되어 수매량은 해마다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주정원료로서의 사용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획기적인 增產 政策이 요구되고 있다.

83年 國稅廳은 주정원료 국산화 비율증대와 농가 所得增大 및 外貨節約과 糧特赤字 일부 해소를 위해 주정원료의 수입분 전량을 국산원료로 대체하고자 “國產보리 酒精原料 代替計劃”을 수립하여 국산보리를 증산 주정용으로 사용토록 조치되었으나 보리생산량 감소에 따른 주정원료로의 공급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87년 계획을 補充하였다.

당초 農林部가 직접 주정업체에 공급하던 것을 농협이 농민과 계약재배를 통한 수매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매년 주정가격 인상억제를 위해 고가의 보리사용량을 제



[그림 1] 년도별 국산원료 사용현황

한(輸入原料의 4~6배)하므로써 당년산을 당해년도에 전량사용치 못하여 매년 많은량이 차년도로 이월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정원료의 국산원료 多邊化政策과 농한기에 유희농지 활용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정부의 양특적자를 해소하고자 국산옥수수를 주정원료로 공급하고 있다. 매년 수매되는 옥수수는 全量 황옥(메옥수수)으로서 食品加工(주정원료 포함) 및 飼料用으로 사용되고 찰옥수수는 市中에서 식용으로 유통 소비되고 있다. 따라서, 95년부터 국산옥수수를 주정원료로서 사용하고 있으나 매년 수매량의 감소로 인해 많은량을 사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輸入原料

타피오카는 1974년부터 수입원료로 당밀과 相互 代替하여 수입 사용하여 왔으나 정부는 82년에 公害問題로 부각된 당밀 사용을 규제함에 따라 발효시설의 主수입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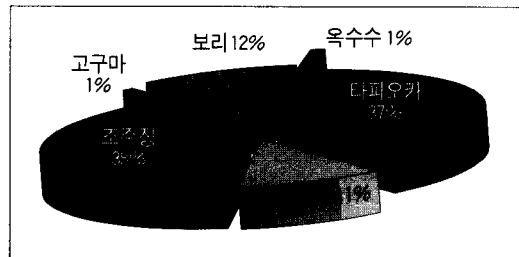
매년 타피오카 물량은 국산원료 全量사용후 부족분에 限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국산원료 사용량에 따라 타피오카 사용

량이 결정되며 국산원료에 비해 가격이 훨씬 低廉한 편이나 최근 産地의 경제여건 변화로 價格變動이 심하고 생산지가 동남아에 한정되어 있어 수확량 변동에 따라 적기 구입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1980년부터 정부는 공해문제가 없는 粗酒精을 精製施設원료로 수입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주정공장 移轉等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만 발효시설을 사용하여 조주정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許容하여 주고 있다.

정부는 87년부터 공해문제가 대두된 발효시설의 생산능력을 738,677드람으로 固定시키고 주정수요가 증가될 시 정제시설에서 무공해 원료인 조주정을 사용하여 주정을 생산토록 하고 있다.

매년 많은 양의 타피오카를 구입하고 있는



[그림 2] 96년 원료별 주정생산량 비율

로 발생되었다.

따라서 국산 주정원료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구마와 보리의 국내 생산량이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遊休農地와 農閑期 활용을 통한 국내산 원료 增産獎勵策을 시행하여 주정원료의 국산화비중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농가소득 증대와 외화절약의 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정가격을 10여년간 동결 또는 소폭 인상하므로서 국산원료의 사용량이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주정가격의 현실화가 개선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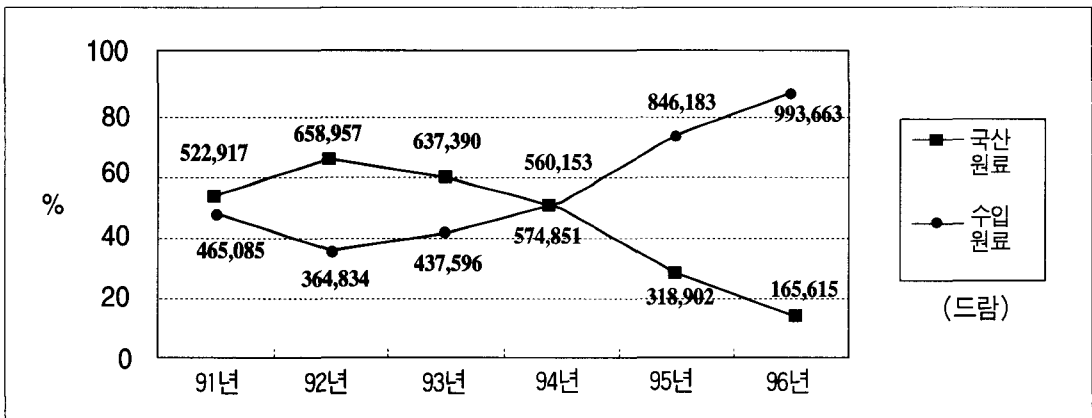
는한 국산원료 사용비율은 계속 감소하게 될 것이다.

발효시설원료인 타피오카를 기준한 국산원료비 대비는 원료에 따라 3.5~5.9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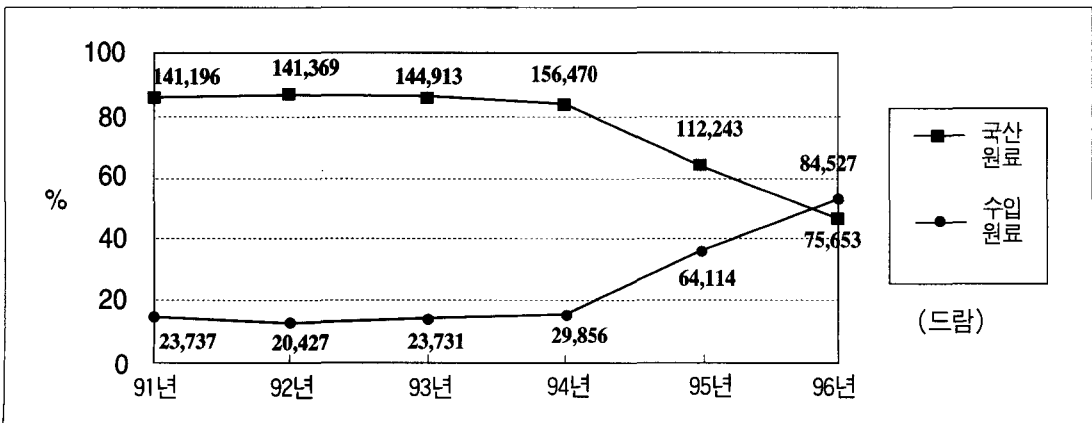
라. 酒精原料 需給展望

1) 國產原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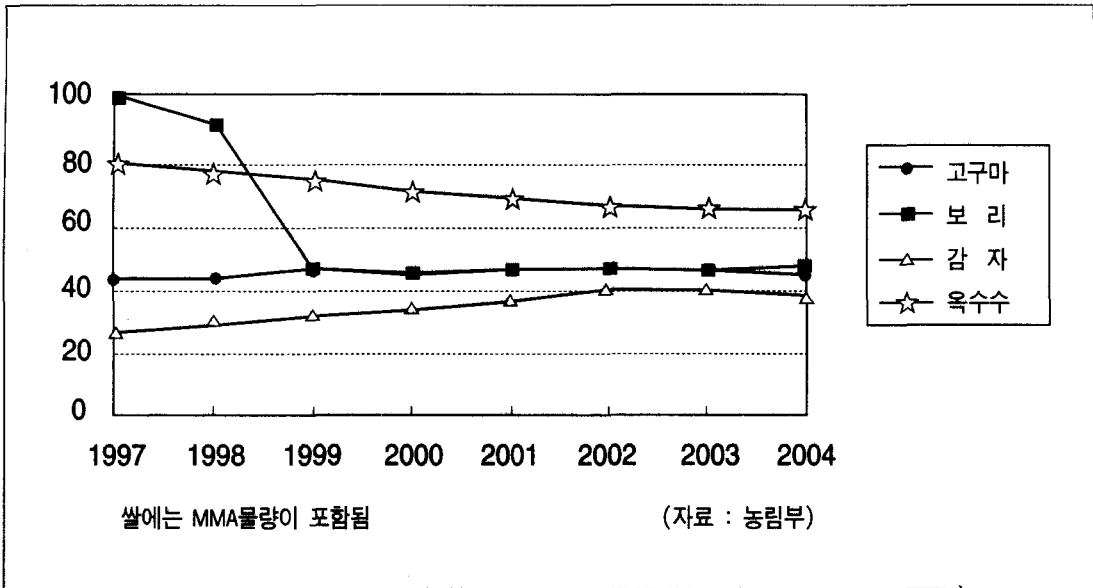
OECD가입과 WTO 농업협정서에 따라 자국 농산물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삭감으로 농민들의 증산의욕 상실과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되어 타작물에 비하여



[그림 5] 국산 및 수입생산량 대비표



[그림 6] 국산 및 수입원료비 대비표



[그림 7] 국산원료 장기 수급예상

수익성이 낮은 고구마와 보리 등의 생산 기피가 두드러지며 또한 농협에서 계약재배 등으로 수매하고 있으나 식용보리의 소비 감소와 정부의 증산 장려정책 미비로 농민들의 생산 열의가 상실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증산 장려정책이 없는 한 앞으로 현재보다 생산량이 증가될 전망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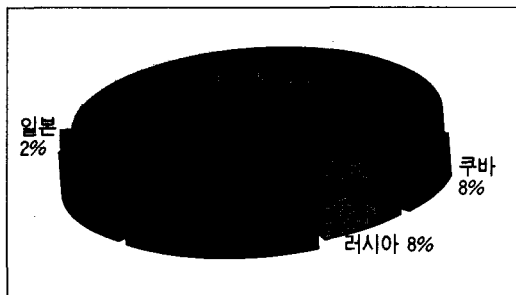
2) 輸入原料

타피오카는 원산지인 동남아시아의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현지인들의 임금 상승으로 가격이 앙등하고 있는 추세이고, 생산량도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자국의 소비증가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향후 수년간은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粗酒精은 세계 최대 알콜생산국인 브라질이 燃料用(自動車)으로 자국에서 대부분 소비하고 있으나 일부 정책적 수출물량에 따라 조주

정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점차 증가되고 있는 국내 조주정 수요량은 향후 수년간 미국산과 인도산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적으로 생산지의 다변화를 통한 물량 확보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옥수수는 타피오카와 代替하여 사용토록 조치되어 일부 美國에서 수입 사용한 바 있으나 타피오카에 비해 수율이 낮고 가격이 고가이므로 채산성이 떨어지고 세계 최대 생산국인 미국의 생산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므로 향후 가격추이에 따라 選別수입이 필요하다.



[그림 8] 세계 발효알콜 생산현황(2,253만kl)

Ⅲ. 先進國의 酒精關聯 原料配定制度 및 規制事項

발효·합성을 합친 알코올의 세계 무역수량은 전체 생산량의 7.7%에 불과함으로 일부 수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농산물 정책과 관련 자국에서 생산된 알코올이 자국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선진국 대부분 주정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專賣制를 실시하고, 자국내 농산물보호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국산원료의 배정 및 사용규제를 하고 있어 각국 정부의 주정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WTO協約의 主要論題로 浮刻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표 1〉 先進國 酒精原料 配定制度

國名 區分	獨 逸	스 위 스	日 本	美 國	韓 國
酒精製造 免許管轄	알콜 專賣局	財務省 알콜管理局	大藏省 通商産業省	財務省(알콜, 담배, 銃火機局)	國稅廳
國産原料 配 定	국내산 밀, 감자, 과일 製造業體 地域位置에 따라 規制	국내산 사과, 복숭아, 체리 자두 등 핵과 및 포도 등	국내산 농산물 種類制限없음.	原材料 種類 및 數量規制 없음	국내산, 보리, 고구마, 옥수수, 쌀
輸入原料 配 定	輸入原料 配定은 없으면 EC內에서 完製品 酒精 輸入 可能		國內 農産物 購入에 따라 粗酒精 輸入量 配定	原材料 輸入에도 規制 없음	국내산 원료 우선 使用後 不足分 輸入原料 配定
政府規制 政 策	酒精價格, 販賣流通을 規制함	酒精價格, 販賣 및 原料 收集 規制	酒精生産 販賣價格 規制	酒精生産 價格規制는 없으나 販賣場數와 販賣時間 規制	酒精生産 販賣價格, 原料配定 規制
規 制 法	알콜 專賣法	聯邦알콜法	알콜專賣法 國稅法	內國稅立法 聯邦알콜 管理法	酒稅法
規 制 目的	稅收確保	國民保健 農業政策 稅收確保	産業政策 稅收確保	消費者 保護 稅收確保	農業政策 稅收確保 國民保健